

## ■ EU, 배터리 수은 함유 수은 규제 강화

- EU는 배터리 수은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EU 법규에 따르지 않고 있는 10개 회원국에 경고장을 공식 발송함
  - 1998년 EU 회원국은 아연 탄소와 알칼라인 망간 배터리의 수은 함량을 2000년 1월부터 5 ppm으로 제한하는 지침에 동의한 바 있음
    - 그러나 많은 회원국이 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EU는 벨기에, 독일, 영국 등 10개국에 첫 번째 경고장을 발송함
- EU 배터리 제조업체는 국가별 규제의 지연으로 배터리 재활용에 최소한 1년 이상 추가로 고비용을 지불하게 됨
  - 배터리에 포함된 수은의 양은 비록 작지만 다른 금속과의 혼합재활용이 어려움
    - 따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고비용 재활용 방법을 적용하고 있음
  - EU의 배터리 제조업체는 수은 사용 규제가 시행될 경우 2003년부터 배터리를 다른 금속과 함께 용광로에 투입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했었음
    - 그러나 국가별 규제 이행의 지연으로 2004년 내지 2005년이 되어야만 이러한 방식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향후 수은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가 EU 권역에서 실행될 경우 수입 품 배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임
  - EU 내의 배터리 생산자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발적으로 배터리의 수은 함량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여 EU 법규를 만족시키고 있음
    - 따라서 법규에 따라 소비량의 5~10 % 정도를 점유하는 수입 배터리는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
  - 제품의 수은 등 중금속 함량에 대한 EU의 법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황 파악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    -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도 중금속 함량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

이광원(kwlee@hri.co.kr, 02-3669-4310)